

신성의 삼위(삼인칭)는 그의 영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심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 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계 3 : 20)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고후 6 : 16; 미 7 : 17)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엡 2 : 21, 22) 되게 할 것이다.” (소망 161)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소망 328)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강신술적인 이론을 무익하게 만든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천연계에 편만한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라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또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교회증언 8 권 291)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 (정로의 계단 18)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독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소망 324)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뜻을 밝히 드러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이다.” (정로 26)

“사단은 그대들의 길을 유혹으로 둘러쌀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지적 연구에서 성공을 거두게 하는 동일한 불굴의 의지가 그리스도인의 진로에 필수적이다.” (교회증언 4 권 543)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것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 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교회증언 5 권 294)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third person of the Godhead)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성령(직역:영)은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신다. 성령(직역:영)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직역:영)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직역: 그분의 영)을 주셨다.” (소망 671)

혹자는 위의 시대의 소망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잇 여사는 그녀의 100,000 쪽이 넘는 저술들에서 단 한번도 “삼위일체”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녀가 돌아가신 후 화잇 유산 출판 관리 위원회가 편집 출판한 책 “복음전도”에서 그녀가 기록하지 아니한 소제목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있을 뿐이며 한국 예언의 신 책들의 번역 때 한글 예언의 신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뿐이다.

만약 화잇 여사께서 “신성의 삼위”를 사용하셨으므로 성령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임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녀의 다른 글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성의 일위” 예수님에 관하여는 “신성의 이위”라는 문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영어) 예언의 신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왜 성령을 “신성의 삼위”라고 하셨을까?

어느 언어든 한 단어 혹은 문구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영어도 예외는 아니다. 영어로 “Third Person”은 삼위를 뜻할 때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선지자가 “third person”(삼인칭)을 사용하셨을 때는 항상 소문자였다. (그녀가 돌아가신 후 나중에 출판 관리 위원회가 이것을 삼위일체처럼 보이도록 대문자로 수정하였다.) {*영영사전이나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소문자 “third person”은 “삼인칭”을 뜻한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삼인칭 표현법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 특히 주님은 요한복음 14 장, 15 장, 16 장에서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을 삼인칭의 표현법으로 소개하셨다. 그러므로 “신성의 삼인칭”이라는 표현법은 적절하며 이렇다고 하여 이것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화잇 여사는 “신성의 삼인칭”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다. 만약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의 또 다른 존재인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된 예언의 신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위의 말씀들은 거듭 거듭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게 하실 수 한다고 한다. 만약 성령이 또 다른 개체로써 우리로 죄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성경 말씀과 위의 모든 예언의 신 말씀들, 또 시대의 소망 671 쪽의 말씀은 서로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성령을 그리스도와 분리된 다른 존재로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많은 이유중 하나는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육체로가 아닌 그분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다. 당연히 신성의 삼인칭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영, 곧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모든 악한 성향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